

# 경북행복 BRIEF

Vol. 48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News | March. 2023

법 인 명 칭    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경북행복재단 이옥열  
주 소        39332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T E L        054)710-8832  
홈 페이지    www.ghf.or.kr

01

## 경상북도민의 외로움 실태 조사 및 외로움 척도 연구

강민정 | 경북행복재단 정책연구부장  
한창현 |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이상우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2

## 경상북도 고려인 실태와 지원방안

손능수 | 경북행복재단 정책개발팀장  
박민정 |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지민 |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 경상북도민의 외로움 실태 조사 및 외로움 척도 연구

강민정(경북행복재단 정책연구부장)

한창현(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이상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외로움을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

- 1인 가구의 증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경제불황, 가속화되는 경쟁, 사회계층간 대립 등으로 인해 외로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보편적 경험이 되고 있음.
-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과제로 다루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

- 2018년 1월 영국은 외로움 장관직을 신설하여 외로움에 적극적 대응  
 -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연합은 외로움 문제에 대한 본격적 대응방안 의제화

- 2021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로움 인식 및 실태조사에서, 부산 시민 중 '외롭다'로 느끼는 비율(가끔 느낌+자주 느낌+거의 항상)은 74.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자주 느낌'과 '거의 항상'은 12.5%로 나타남.
- 외로움 자체가 상담의 대상이 되거나 질병은 아니지만 외로움이 지속되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사회적 고립은 물론, 자살과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외로움을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변화로 인한 외로움을 경상북도 차원의 아젠다로 승격하여 「경북 신복지 모델」 개발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외로움 극복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을 위해 외로움 실태를 조사하고 경상북도에서 활용할 외로움 척도를 선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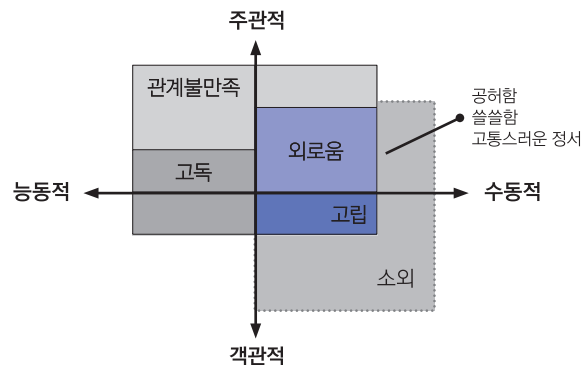
## 2. 외로움의 개념 및 외로움 관련 척도

### 1) 외로움의 개념

- 외로움은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능동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상황, 환경,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 특성, 또 개인이 느끼고 인지하는 주관적 상태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특성은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자발적 고독의 개념을 제외한 고립, 소외, 관계 불만족의 개념과 공통의 영역을 공유하고 있음.

그림 1. 외로움의 개념

자료 : 서영석 외(2022, p. 217). 한국인의 외로움(loneliness):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 2) 외로움 관련 정책연구 현황 및 외로움 척도

· 우리나라 외로움 관련 정책연구는 2016년 이후부터 시, 도 광역차원의 재단,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음.

표 1. 외로움 관련 정책연구 현황 및 외로움 척도에 관한 연구

| 연구명   | 발행연도 | 저자(발행기관)                      | 주요 연구내용   |
|---|------|-------------------------------|---|
|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 2016 | 송인주<br>(서울시복지재단)              | 고독사 개념적 정의 시도, 서울시 고독사 사례를 통한 실태 파악 및 정책 방향 모색                              |
|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                      | 2017 | 송인주<br>(서울시복지재단)              | 지역현장연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특성 유형화, 지역특성 및 욕구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제시                        |
|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 2018 | 송인주, 고선규,<br>박선영<br>(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민 1,000명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실태 조사 및 분석.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모형 개발                       |
| 고독사 위험집단 데이터 분석기반 예방 및 발굴 지원방안 연구           | 2019 | 최현수 외<br>(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고독사 위험 유형 구분, 고독사 위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모색             |
| 부산 시민의 외로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 2020 | 김혜정, 박혜림<br>(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부산시민 1,000명의 외로움 실태 조사 및 분석. 외로움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 2021 | 김성아<br>(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취약계층 청년 개념 유형화, 해외의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례 검토, 국내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
|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                              | 2021 | 고숙자 외<br>(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독사의 개념적 정의 검토, 고독사 실태조사설계 시 고려 사항  |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로움 척도는 Russell과 동료들(1978)이 개발한 “UCLA 외로움 척도(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oneliness Scale)”로서 외로움을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여 개인이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는지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임<sup>1)</sup>.

|   |   |
|---|---|
| 1) 나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다고 느껴진다.            | 11)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
| 2) 나는 나와 같이 있어줄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 12)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         |
| 3)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진다.            | 13) 나는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느껴진다.       |
| 4) 나는 혼자라고 느껴진다.                          | 14)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
| 5) 나는 친구들 안에 속해 있다고 느껴진다.                 | 15) 나는 내가 원할 때는 같이 있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껴진다. |
| 6) 나는 주위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고 느껴진다.              | 16) 나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껴진다.       |
| 7) 나는 더 이상 어느 누구와도 가깝지 않다고 느껴진다.          | 17) 나는 내가 수줍음을 잘 탄다고 느껴진다.                |
| 8) 나는 나의 관심사나 의견이 주위 사람들과 공유되지 못한다고 느껴진다. | 18) 나는 주위에 사람들은 있지만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없다고 느껴진다. |
| 9) 나는 주위사람에게 사교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느껴진다.       | 19) 나는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진다.       |
| 10) 나는 주위사람들과 가깝다고 느껴진다.                  | 20) 나는 내가 의지할만한 사람이 있다고 느껴진다.             |

1) 4점 리커트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때때로 그렇다 ④ 자주 그렇다



### 3. 외로움 실태조사 결과

#### 1) 조사 대상, 방법 및 내용

- 경상북도 23개 시군 15세 이상 도민 1,5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27일부터 5월 23일까지 23개 시군 보건소에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고령의 경우 면접형식 병행)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1,506명이었음.
- 실태조사 항목은 일반적 특성 7문항, 건강 및 장애 특성 7문항, 경제 및 주거특성 7문항, 가족 및 사회관계 특성 9문항,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36문항, 코로나19로 인한 관계 변화 5문항, 외로움 지원 4문항 글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었음.

#### 2)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자 1,506명의 UCLA 외로움 척도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 척도 평균은 4점 만점에 1.92점으로 2020년 부산 시민의 외로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결과(5점 만점 중 평균 2.15점<sup>2)</sup>에 비해 경북도민의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자 1,506명의 DJGLS 외로움 척도<sup>3)</sup>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척도 평균은 3점 만점에 1.64점으로 나타났음.

표 2. UCLA 척도의 빈도 및 점수

| 항목  | 단위 : 명(%), 평균점수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4점 척도 평균 |
| 전체 항목 평균  | (32.1)          | (44.0)    | (19.5)    | (4.4)     | 1.92     |
| 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끼십니까?*                       | 527(35.0)       | 843(56.0) | 112(7.4)  | 24( 1.6)  | 1.76     |
|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의 교제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 294(19.5)       | 633(42.0) | 482(32.0) | 97( 6.4)  | 2.25     |
| 얼마나 자주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 542(36.0)       | 588(39.0) | 316(21.0) | 60( 4.0)  | 1.93     |
| 얼마나 자주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 491(32.6)       | 510(33.9) | 402(26.7) | 103( 6.8) | 2.08     |
| 얼마나 자주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끼십니까?*                       | 483(32.1)       | 708(47.0) | 221(14.7) | 4( 0.2)   | 1.95     |
| 얼마나 자주 당신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끼십니까?*                | 359(23.8)       | 823(54.6) | 266(17.7) | 58( 3.9)  | 2.02     |
| 얼마나 자주 당신이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 559(37.1)       | 606(40.2) | 290(19.3) | 51( 3.4)  | 1.89     |
| 얼마나 자주 당신의 흥미와 생각들이 주변 사람과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 451(29.9)       | 635(42.2) | 353(23.4) | 67( 4.4)  | 2.02     |
| 얼마나 자주 자신이 적극적이고 호의적이라고 느끼십니까?*                     | 381(25.3)       | 847(56.2) | 236(15.7) | 42( 2.8)  | 1.96     |
|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 450(29.9)       | 844(56.0) | 182(12.1) | 30( 2.0)  | 1.86     |
| 얼마나 자주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십니까?                              | 542(36.0)       | 534(35.5) | 338(22.4) | 92( 6.1)  | 1.99     |
|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끼십니까?                   | 536(35.6)       | 540(35.9) | 365(24.2) | 65( 4.3)  | 1.97     |
| 얼마나 자주 당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 586(38.9)       | 530(35.2) | 326(21.6) | 64( 4.2)  | 1.91     |
|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 647(43.0)       | 531(35.3) | 271(18.0) | 57( 3.8)  | 1.83     |
| 얼마나 자주 당신이 원할 때에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 473(31.4)       | 687(45.6) | 246(16.3) | 100( 6.6) | 1.98     |
| 얼마나 자주 당신을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 497(33.0)       | 765(50.8) | 196(13.0) | 48( 3.2)  | 1.86     |
| 얼마나 자주 수줍음을 느끼십니까?                                  | 309(20.5)       | 575(38.2) | 518(34.4) | 104( 6.9) | 2.28     |
|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당신과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느끼십니까? | 403(26.8)       | 575(38.2) | 434(28.8) | 94( 6.2)  | 2.15     |
| 얼마나 자주 당신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545(36.2)       | 759(50.4) | 160(10.6) | 42( 2.8)  | 1.80     |
| 얼마나 자주 당신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 575(38.2)       | 727(48.3) | 165(11.0) | 39( 2.6)  | 1.78     |

\*: 역문항으로 환산됨

2) 김혜정·박혜림. (2020) 부산 시민의 외로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3) UCLA 외로움 척도와 함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측정도구로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척도이며 총 6개의 문항(사회적 외로움 3문항, 정서적 외로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 DJGLS(De 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 척도의 빈도 및 점수

단위 : 명(%), 평균점수

| 항목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3점 척도 평균 |
|---------------------------------|-----------|-----------|-----------|----------|
| 전체 항목 평균                        | (47.1)    | (41.8)    | (11.1)    | 1.64     |
| ① 나는 삶에서 공허한 감정을 느낀다.           | 650(43.2) | 622(41.3) | 234(15.5) | 1.72     |
| ② 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워한다.            | 678(45.0) | 599(39.8) | 229(15.2) | 1.70     |
| ③ 나는 종종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 923(61.3) | 459(30.5) | 124(8.2)  | 1.47     |
| ④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충분히 많다.* | 658(43.7) | 694(46.1) | 154(10.2) | 1.67     |
| ⑤ 나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 617(41.0) | 748(49.7) | 141(9.4)  | 1.68     |
| ⑥ 나는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     | 731(48.5) | 656(43.6) | 119(7.9)  | 1.59     |

\*: 역문항으로 환산됨

· UCLA 외로움 척도 점수는 연령, 학력, 혼인상태, 거주기간, 가구형태,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장애인 등록 여부,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 만족도, 소득, 경제활동 유무, 주택 유형, 가구의 수입 만족도, 직업(일)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가 나타났음.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로움 척도 점수

단위 : 명(%), 점수

| 구분            | 전체           | UCLA 척도 | DJGLS 척도 |         |         |
|---------------|--------------|---------|----------|---------|---------|
|               |              |         | 계        | 정서적 외로움 | 사회적 외로움 |
| <b>성별</b>     |              |         |          |         |         |
| 남             | 750(49.8)    | 1.92    | 1.64     | 1.61    | 1.66    |
| 여             | 756(50.2)    | 1.92    | 1.64     | 1.66    | 1.63    |
| <b>연령</b>     |              |         |          |         |         |
| <20세          | 99(6.6)      | 1.72**  | 1.49**   | 1.47**  | 1.50**  |
| 20-29세        | 190(12.6)    | 1.74    | 1.47     | 1.54    | 1.40    |
| 30-39세        | 185(12.3)    | 1.83    | 1.53     | 1.56    | 1.51    |
| 40-49세        | 265(17.6)    | 1.96    | 1.63     | 1.60    | 1.67    |
| 50-59세        | 300(19.9)    | 1.94    | 1.70     | 1.67    | 1.73    |
| 60-69세        | 250(16.6)    | 1.97    | 1.69     | 1.65    | 1.73    |
| 70세≤          | 217(14.4)    | 2.14    | 1.82     | 1.81    | 1.83    |
| <b>학력</b>     |              |         |          |         |         |
| 초등학교 졸업 이하    | 150(10.0)    | 2.19**  | 1.81**   | 1.78**  | 1.85**  |
| 중학교           | 174(11.6)    | 1.99    | 1.75     | 1.72    | 1.79    |
| 고등학교          | 321(21.3)    | 1.92    | 1.65     | 1.66    | 1.64    |
|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 861(57.2)    | 1.86    | 1.58     | 1.58    | 1.59    |
| <b>혼인 상태</b>  |              |         |          |         |         |
| 미혼            | 431(28.6)    | 1.86**  | 1.60**   | 1.62**  | 1.57**  |
| 기혼            | 897(59.6)    | 1.90    | 1.61     | 1.59    | 1.63    |
| 이혼·별거         | 60(4.0)      | 2.26    | 1.96     | 1.93    | 1.98    |
| 사별            | 118(7.8)     | 2.17    | 1.84     | 1.82    | 1.85    |
| <b>거주지역</b>   |              |         |          |         |         |
| 시             | 958(63.6)    | 1.91    | 1.63     | 1.62    | 1.64    |
| 군             | 548(36.4)    | 1.95    | 1.66     | 1.66    | 1.66    |
| <b>거주기간</b>   |              |         |          |         |         |
| <20년          | 427(28.4)    | 1.89**  | 1.60**   | 1.62*   | 1.58**  |
| 20-39년        | 491(32.6)    | 1.85    | 1.58     | 1.58    | 1.58    |
| 40년≤          | 588(39.0)    | 2.01    | 1.71     | 1.68    | 1.75    |
| <b>가구형태</b>   |              |         |          |         |         |
| 단독가구          | 389(25.8)    | 2.04**  | 1.73**   | 1.71**  | 1.74**  |
| 1세대 가구        | 344(22.8)    | 1.89    | 1.62     | 1.64    | 1.61    |
| 2세대 가구        | 704(46.7)    | 1.87    | 1.59     | 1.57    | 1.61    |
| 3세대 가구        | 53(3.5)      | 1.85    | 1.58     | 1.60    | 1.55    |
| 기타·비혈연가족      | 16(1.1)      | 2.49    | 2.28     | 2.33    | 2.23    |
| 계             | 1,506(100.0) | 1.92    | 1.64     | 1.63    | 1.65    |

\* p<0.05, \*\* p<0.01



· 우울 척도 점수는 4점 만점에 전체 항목 평균이 1.44점으로 나타났고, 각 항목별로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가 1.86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가 1.66점,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가 1.60점, '식욕이 줄었다/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가 1.53점,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가 1.47점으로 평균보다 높았음.

표 5. 우울 척도의 빈도 및 점수

단위 : 인수(%), 점수

| 항목  | 전혀 없음      | 며칠 동안     | 1주일 이상   | 거의 매일    | 척도 평균 |
|---|------------|-----------|----------|----------|-------|
| 전체 항목 평균  | (68.1)     | (23.5)    | (4.7)    | (3.7)    | 1.44  |
|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 816(54.2)  | 546(36.3) | 77(5.1)  | 67(4.4)  | 1.60  |
|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 950(63.1)  | 446(29.6) | 69(4.6)  | 41(2.7)  | 1.47  |
|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 840(55.8)  | 443(29.4) | 115(7.6) | 108(7.2) | 1.66  |
|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 583(38.7)  | 661(43.9) | 151(10)  | 111(7.4) | 1.86  |
| 식욕이 줄었다/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 950(63.1)  | 388(25.8) | 91(6)    | 77(5.1)  | 1.53  |
|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 1193(79.2) | 227(15.1) | 52(3.5)  | 34(2.3)  | 1.29  |
|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 1223(81.2) | 213(14.1) | 39(2.6)  | 31(2.1)  | 1.25  |
|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혹은 너무 안전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 1300(86.3) | 159(10.6) | 27(1.8)  | 20(1.3)  | 1.18  |
|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 한다.                        | 1372(91.1) | 103(6.8)  | 20(1.3)  | 11(0.7)  | 1.12  |

· 우울 척도와 외로움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울 척도와 UCLA 외로움 척도 및 DJGLS 척도의 정서적 외로움 점수 및 사회적 외로움 점수 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6. 우울 척도와 외로움 간의 상관관계

단위 : 인수(%), 점수

| 구분  | UCLA 척도 | DJGLS 척도 |         |         |
|---|---------|----------|---------|---------|
|   |         | 계        | 정서적 외로움 | 사회적 외로움 |
|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 0.585** | 0.567**  | 0.537** | 0.433** |
|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 0.582** | 0.586**  | 0.573** | 0.429** |
|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 0.401** | 0.407**  | 0.399** | 0.297** |
|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 0.400** | 0.400**  | 0.400** | 0.285** |
| 식욕이 줄었다/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 0.335** | 0.322**  | 0.340** | 0.213** |
|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 0.475** | 0.500**  | 0.471** | 0.384** |
|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 0.380** | 0.389**  | 0.375** | 0.291** |
|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혹은 너무 안전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 0.369** | 0.356**  | 0.359** | 0.251** |
|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 한다.                        | 0.319** | 0.315**  | 0.313** | 0.226** |
| 전체 우울 점수  | 0.597** | 0.597**  | 0.585** | 0.436** |

\*\* p<0.01



· UCLA 외로움 척도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자 1,506명의 외로움 정도를 Perry 등에 의해 제기된 등급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외로움 정도가 중고도인 경우가 274명으로 전체 18.2%를 차지하였고, 중등도인 경우는 45.2%로 나타나 65% 정도가 외로움 정도가 중등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7. 조사대상자의 UCLA 외로움 정도

| UCLA 외로움 정도                        | 명(%)                |
|------------------------------------|---------------------|
| <b>Perry 등에 의한 분류<sup>1)</sup></b> |                     |
| 저단계                                | 552(36.7)           |
| 중등도                                | 680(45.2)           |
| 중고도                                | 240(15.9)           |
| 고단계                                | 34(2.3)             |
| <b>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류</b>               |                     |
| 저단계                                | 552(36.7)           |
| 중등도                                | 680(45.2)           |
| 중고도 이상                             | 274(18.2)           |
| <b>전체</b>                          | <b>1,506(100.0)</b> |

주 1) UCLA 외로움 척도 분류는 Perry 등에 의해 제기된 등급을 적용함. 즉 총점 80점 기준으로 20~34점(4점 만점 기준: ≤1.7점)은 저단계 외로움, 35~49점(4점 만점 기준: 1.75~2.45점)은 중등도 외로움, 50~64점(4점 만점 기준: 2.50~3.20점)은 중고도 외로움, 65~80점(4점 만점 기준: 3.25점≤)은 고단계 외로움으로 구분함.

- Perry 분류에서 저단계, 중등도 단계, 중고도 이상 단계의 세 단계를 중심으로 대상자 특성별 UCLA 외로움 정도 현황을 분석하였음.

- 성별에 따른 UCLA 외로움 정도는 중고도 이상의 경우 남자는 18.8%, 여자는 17.6%이었고,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경우 중고도 이상이 34.1%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중고도 이상이 가장 낮았으며 연령별로 외로움 정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중고도 이상이 36.0%이었고, 중학교 졸업은 중고도 이상이 23.6%였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중고도 이상은 적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학력별로 외로움 정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혼인 상태에 따른 외로움 정도는 이혼사별의 경우 중고도 이상이 43.3%이었고, 사별의 경우 중고도 이상이 35.6%로 나타나 혼인 상태별로 외로움 정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가구 형태에 따른 외로움 정도는 단독 가구의 경우 중고도 이상이 25.7%, 3세대 가구는 중고도 이상이 20.8%이었으며, 기타비혈연가족의 경우 중고도 이상이 62.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가구 형태별로 외로움 정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표 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UCLA 외로움 정도 현황

단위: 명, %

| 구분             | 전체 대상자 수 | UCLA 외로움 정도 |      |        |
|----------------|----------|-------------|------|--------|
|                |          | 저단계         | 중등도  | 중고도 이상 |
| <b>성별</b>      |          |             |      |        |
| 남              | 750      | 36.5        | 44.7 | 18.8   |
| 여              | 756      | 36.8        | 45.6 | 17.6   |
| <b>연령**</b>    |          |             |      |        |
| <20세           | 99       | 51.5        | 37.4 | 11.1   |
| 20-29세         | 190      | 50.0        | 41.1 | 8.9    |
| 30-39세         | 185      | 46.5        | 38.4 | 15.1   |
| 40-49세         | 265      | 32.1        | 51.7 | 16.2   |
| 50-59세         | 300      | 34.7        | 46.7 | 18.7   |
| 60-69세         | 250      | 32.0        | 50.0 | 18.0   |
| 70세≤           | 217      | 23.5        | 42.4 | 34.1   |
| <b>학력**</b>    |          |             |      |        |
| 초등학교 졸업 이하     | 150      | 18.0        | 46.0 | 36.0   |
| 중학교            | 174      | 32.8        | 43.7 | 23.6   |
| 고등학교           | 321      | 37.4        | 44.2 | 18.4   |
|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 861      | 40.4        | 45.6 | 13.9   |
| <b>혼인 상태**</b> |          |             |      |        |
| 미혼             | 431      | 43.2        | 39.4 | 17.4   |
| 기혼             | 897      | 36.8        | 48.6 | 14.6   |
| 이혼·별거          | 60       | 20.0        | 36.7 | 43.3   |
| 사별             | 118      | 20.3        | 44.1 | 35.6   |
| <b>가구 형태**</b> |          |             |      |        |
| 단독가구           | 389      | 31.1        | 43.2 | 25.7   |
| 1세대 가구         | 344      | 38.7        | 46.2 | 15.1   |
| 2세대 가구         | 704      | 38.6        | 47.0 | 14.3   |
| 3세대 가구         | 53       | 47.2        | 32.1 | 20.8   |
| 기타·비혈연가족       | 16       | 6.3         | 31.3 | 62.5   |
| 계              | 1506     | 36.7        | 45.2 | 18.2   |

· 우울 척도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한 상담 서비스'는 52.0%, '반려 동물 및 반려 식물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50.7%, '식사모임, 운동모임 등 사회적 친구 또는 가족 맺기 등 서비스' 50.6%, '요리교실, 가구만들기 등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 52.8%,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50.9% 등으로 나타났음.

-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서비스 이용 의향은 '반려 동물 및 반려 식물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14.5%,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한 상담서비스'는 13.9%, '요리교실, 가구만들기 등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 13.7% 등으로 나타났음.



표 9. 외로움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성 정도와 정책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단위 : 명(%)

| 항목   | 정책 필요성(N=1,506) |           |           | 정책 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N=1,506) |            |
|--|-----------------|-----------|-----------|--------------------------|------------|
|  | 필요없음            | 보통        | 필요함       | 여                        | 부          |
|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한 상담서비스   | 238(18.8)       | 440(29.2) | 783(52.0) | 209(13.9)                | 1297(86.1) |
| 대화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 마련<br>(예 : 지역공원 내 '대화벤치' 설치를 통한 대화 캠페인) | 369(24.5)       | 440(29.2) | 697(46.3) | 161(10.7)                | 1345(89.3) |
| 영화 관람, 식사, 운동, 쇼핑 등 활동에 친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 339(22.5)       | 472(31.3) | 695(46.1) | 175(11.6)                | 1331(88.4) |
| 인공지능 활용 반려 로봇  | 575(38.2)       | 481(31.9) | 450(29.9) | 137(9.1)                 | 1369(90.9) |
| 사물인터넷을 통한 안부확인서비스  | 525(34.9)       | 496(32.9) | 485(32.2) | 111(7.4)                 | 1395(92.6) |
| 외로움 관련 모바일 앱 또는 게임 개발  | 626(41.6)       | 481(31.9) | 399(26.5) | 77(5.1)                  | 1429(94.9) |
| 반려 동물 및 반려 식물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 329(21.8)       | 413(27.4) | 764(50.7) | 218(14.5)                | 1288(85.5) |
| 식사모임, 운동모임 등 사회적 친구 또는 가족 맺기 등 서비스                                 | 294(19.5)       | 450(29.9) | 762(50.6) | 179(11.9)                | 1327(88.1) |
| 요리교실, 가구만들기 등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   | 302(20.1)       | 409(27.2) | 795(52.8) | 206(13.7)                | 1300(86.3) |
|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 284(18.9)       | 456(30.3) | 766(50.9) | 173(11.5)                | 1333(88.5) |
| 시간설계 및 재무관리 등 미래 설계 프로그램   | 426(28.3)       | 489(32.5) | 591(39.2) | 133(8.8)                 | 1373(91.2) |
| 쉐어 하우스 등 공동체 주택 사업   | 494(32.8)       | 506(33.6) | 506(33.6) | 96(6.4)                  | 1410(93.6) |
| 지자체 차원의 지역주민 외로움 진단을 통한 사전 예방 및 사례 관리 프로그램                         | 384(25.5)       | 488(32.4) | 634(42.1) | 112(7.4)                 | 1394(92.6) |

## 4. 경상북도민의 외로움 척도 타당화 분석

### 1) 경상북도민의 UCLA 척도 활용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모형적합도

- 경상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UCLA 외로움 척도(3판) 20문항은 도민의 정서적·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외로움 실태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고, 20문항으로 다수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 응답 오류 발생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 연구의 자문단 및 전문가 그룹에서 의견을 제기함. 따라서 20문항 중 1차 요인 분석에서 요인적재량이 0.70 이상인 항목만을 추출해 외로움 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 실시함.
- UCLA 문항간 상관관계는 문항 간 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음(표 9).
-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방식은 주축 요인추출(principle axis factoring) 방식, 요인회전 방식으로는 원저자의 연구 분석방법을 따르기 위해 직교방식인 베리맥스(varimax)를 이용해 실시하였음(표 10).
- 본 연구의 KMO 값은 0.935로 설명력이 매우 높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결과는  $\chi^2(66) = 13240.8,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따라서 이 값들은 기존 한국어 판 UCLA 외로움 척도(3판) 20문항 사용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와 비슷하여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UCLA 12문항 요인분석 사용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함.
- 각 요인의 명칭은 요인 1은 사회적 고립(정문항), 요인 2는 사회적 연결감(역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은 0.60 이상으로 대부분의 문항에서 높은 수준이었음.



표 10. 경상북도민의 UCLA 외로움 척도 활용을 위한 12문항 간의 상관관계

| 구분 | 3      | 4      | 7      | 8      | 11     | 12     | 13     | 14     | 10     | 16     | 19     | 20 |
|----|--------|--------|--------|--------|--------|--------|--------|--------|--------|--------|--------|----|
| 3  | 1      |        |        |        |        |        |        |        |        |        |        |    |
| 4  | .666** | 1      |        |        |        |        |        |        |        |        |        |    |
| 7  | .658** | .637** | 1      |        |        |        |        |        |        |        |        |    |
| 8  | .600** | .596** | .726** | 1      |        |        |        |        |        |        |        |    |
| 11 | .636** | .730** | .675** | .656** | 1      |        |        |        |        |        |        |    |
| 12 | .592** | .609** | .644** | .598** | .703** | 1      |        |        |        |        |        |    |
| 13 | .614** | .618** | .674** | .626** | .681** | .744** | 1      |        |        |        |        |    |
| 14 | .668** | .664** | .682** | .630** | .736** | .712** | .800** | 1      |        |        |        |    |
| 10 | .431** | .432** | .485** | .426** | .460** | .463** | .463** | .458** | 1      |        |        |    |
| 16 | .393** | .401** | .438** | .381** | .433** | .398** | .449** | .429** | .533** | 1      |        |    |
| 19 | .419** | .393** | .422** | .371** | .407** | .385** | .426** | .443** | .521** | .635** | 1      |    |
| 20 | .461** | .383** | .452** | .388** | .397** | .395** | .446** | .449** | .524** | .621** | .782** | 1  |

주) 구분은 UCLA 외로움 척도 문항 번호임.  
\*\* p<0.01

표 11. 경상북도민의 UCLA 외로움 척도 활용을 위한 요인분석

| 문항  | 단위 : 점  |         |
|---|---------|---------|
|   | 사회적 고립감 | 사회적 연결감 |
| 11. 얼마나 자주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십니까?                      | 0.834   | 0.244   |
| 14.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 0.831   | 0.281   |
| 13. 얼마나 자주 당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 0.807   | 0.291   |
| 12.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끼십니까?           | 0.802   | 0.237   |
| 7. 얼마나 자주 당신이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 0.792   | 0.300   |
| 4. 얼마나 자주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 0.787   | 0.235   |
| 8. 얼마나 자주 당신의 흥미와 생각들이 주변 사람과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 0.776   | 0.225   |
| 3. 얼마나 자주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 0.748   | 0.293   |
| 19. 얼마나 자주 당신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0.217   | 0.872   |
| 20. 얼마나 자주 당신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 0.238   | 0.862   |
| 16. 얼마나 자주 당신을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 0.262   | 0.788   |
| 10.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 0.377   | 0.637   |

주) 요인추출 방법(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Kaiser-Meyer-Olkin(KMO) =0.935/Bartlett의 구형성 검정 13240.8(df=66, p=0.000), Cronbach's=0.935

## 2)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경북도민의 UCLA 외로움 척도 12문항의 요인구조를 밝힌 후, 경북도민의 UCLA 외로움 척도 12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음.
-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0.935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인정되었고, DJGLS 외로움 척도와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분석한 결과, 두 척도 간의 상관계수가 0.765로 높은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두 척도간의 수렴도가 높았으므로, 경상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외로움 측정의 척도로도 활용 가능함을 제시함.



### 3) 경상북도민의 UCLA 외로움 척도(12문항) 활용 방안

- 경상도민의 UCLA 외로움 척도 12문항 점수에 따른 외로움 정도를 분류한 결과, Perry 등에 의한 분류를 4점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고단계가 43명(2.9%), 중고도단계는 268명(17.8%), 중등도 단계는 591명(39.2%)으로 분석되었음.
- 향후 도와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들의 외로움 정도를 측정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UCLA 단축형 (12문항) 척도를 활용하여, 외로움 정도 수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경상도민의 외로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할 UCLA 외로움 척도의 12문항은 <표 12>와 같음.

표 12. 경상북도민의 UCLA 12문항 외로움 척도 선정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
| ① 얼마나 자주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십니까?                        | 1         | 2         | 3      | 4      |
| ②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 1         | 2         | 3      | 4      |
| ③ 얼마나 자주 당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 1         | 2         | 3      | 4      |
| ④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끼십니까?             | 1         | 2         | 3      | 4      |
| ⑤ 얼마나 자주 당신이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 1         | 2         | 3      | 4      |
| ⑥ 얼마나 자주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 1         | 2         | 3      | 4      |
| ⑦ 얼마나 자주 당신의 흥미와 생각들이 주변 사람과 나누어 지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 1         | 2         | 3      | 4      |
| ⑧ 얼마나 자주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 1         | 2         | 3      | 4      |
| ⑨ 얼마나 자주 당신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1         | 2         | 3      | 4      |
| ⑩ 얼마나 자주 당신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 1         | 2         | 3      | 4      |
| ⑪ 얼마나 자주 당신을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 1         | 2         | 3      | 4      |
| ⑫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 1         | 2         | 3      | 4      |

\* 역문항으로 환산됨

## 참 고 문 헌

- 고숙자 외. (2021).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정 · 박혜림. (2020). 부산 시민의 외로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서영석 · 안수정 · 김현진 · 고세인. (2020). 한국인의 외로움 (loneliness):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2), 205-247.
- 손영준 · 허만섭. (2020). 코로나 19 확산 후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력감, 외로움 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11), 1957-1971.
- 송인주 · 고선규 · 박선영. (2018).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양승경 · 이수정 · 이은주. (2022). 지역사회 노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우울, 외로움, 자아존중감,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중심으로. 글로벌 건강과 간호. 12(1), 78-87.
- 이상우. (2017).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패널 로짓 모형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37(3), 191-229.
- 이승희 · 김영범. (2019). 독거, 외로움, 우울증상의 관계에 대한 일 연구: 외로움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9(3), 451-465.

본 연구는 경북행복재단(2022) '경상북도민의 외로움 실태조사 및 외로움 척도 연구'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스 페 셸 코 멘 트

## SPECIAL COMMENT



현재 대한민국은 이전에 비해 많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발전의 이면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집단이 있다. 이런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상북도의 외로움 대책 사업은 세계적인 추세에 일치하며 세계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발굴하고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로움을 느끼는 도민들의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자살 예방에도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북행복재단의 외로움 실태조사와 외로움 척도의 타당도 조사는 경상북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에 앞서 예비 조사적인 성격으로, 외국에서 타당도가 입증된 척도가 경상북도민을 대상으로 할 때도 충분한 사용 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 의미가 크다.

이러한 척도를 이용해서 전체 도민들의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고, 적절한 평가를 통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선별하여, 부가적인 전문가들의 우울증이나 자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경상북도민 전체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이 광 현



# 경상북도 고려인 실태와 지원방안

손능수(경북행복재단 정책개발팀장)

박민정(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지민(영남이공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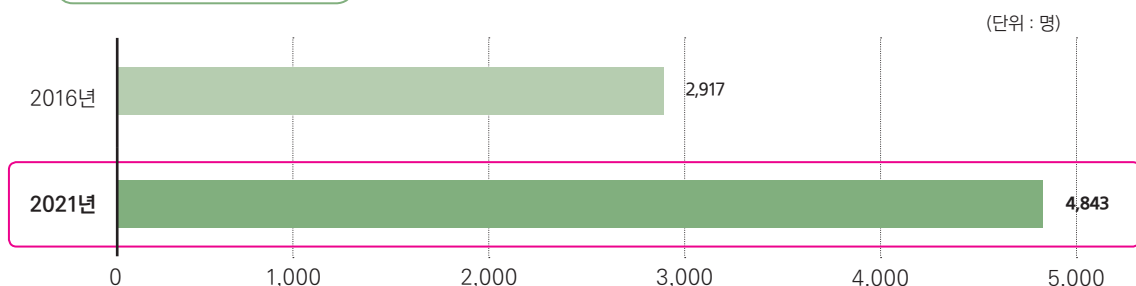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한국사회는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모국귀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고려인의 국내이주와 관련하여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CIS지역 고려인 동포의 모국귀환 이주가 급증하였음.
-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은 78,325명이며, 주로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상북도 경주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에서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음. 경북도내 고려인은 2021년 기준 4,843명으로 2016년 2,917명 대비 66.0% 증가하였고,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고려인 주민들의 거주 및 정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편 고려인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국내에 거주하면서 교육, 주거, 일자리 등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상의 개선을 위한 고려인 지원정책이 매우 필요함. 특히 경북도내 고려인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지역 생산인구 확보 방안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고려인이 지역사회 정착 및 체류 자격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생산인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경상북도 고려인 실태를 분석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과 고려인의 생활영역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함.

## 2. 경상북도 고려인 관련 현황

- 경상북도 고려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6년과 2021년 12월 기준 고려인 현황의 내부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음.
- 전국 고려인의 규모는 2016년 49,392명에서 2021년 78,325명으로 약 59% 증가하였음. 2021년 12월 현재 고려인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30,420명, 38.8%)이고, 다음이 충남(11,982명, 15.3%), 인천(8,430명, 10.8%), 충북(6,000명, 7.7%), 경남(5,323명, 6.8%), 경북 4,843명(6.2%)의 순이었음. 경북은 2016년 2,917명에서 2021년 4,843명으로 66%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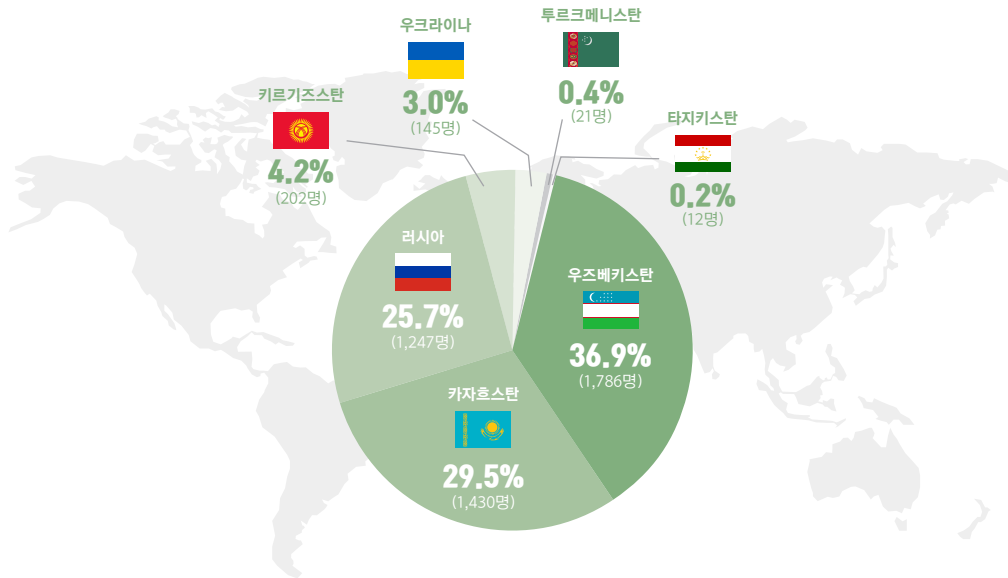
그림 1. 경상북도 고려인 현황





·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1,786명, 36.9%), 카자흐스탄(1,430명, 29.5%), 러시아(1,247명, 25.7%), 키르기스스탄(202명, 4.2%), 우크라이나(145명, 3.0%), 투르크메니스탄(21명, 0.4%), 타지키스탄(12명, 0.2%)의 순이었음.

그림 2. 국적별 경상북도 고려인 현황



· 경상북도 시군별로는 총 4,843명 중 4,332명(89.4%)이 경주에 밀집되어 체류하고 있음. 그 외에는 경산시 151명(3.1%), 영천시 119명(2.5%), 구미시 63명(1.3%), 김천시 16명(0.3%) 등 체류하고 있으며, 봉화군, 상주시, 예천군, 울릉군, 의성군에는 고려인이 체류하고 있지 않았음.

· 전국의 시군구 중 고려인 수가 많은 지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2021년 현재 경기도 안산시의 고려인이 14,980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국 대비 19.1%가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음. 경북 경주시의 경우 상당히 빠르게 규모가 증가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고, 경기나 충남, 충북의 경우는 각각 안산, 화성, 안성(경기), 아산, 천안(충남), 청주, 진천(충북) 등 2개 이상의 도시로 분산되어지는 반면 경북은 경주시에만 집중되어 거주하는 특성이 있음.

표 1. 시군구별 고려인 규모 순위

단위 : 명

| 순위 | 2016   |        | 순위 | 2021   |        |
|----|--------|--------|----|--------|--------|
|    | 지역명    | 고려인수   |    | 지역명    | 고려인수   |
| 1  | 경기 안산시 | 10,937 | 1  | 경기 안산시 | 14,980 |
| 2  | 충남 아산시 | 3,348  | 2  | 충남 아산시 | 7,672  |
| 3  | 광주 광산구 | 2,757  | 3  | 인천 연수구 | 6,507  |
| 4  | 인천 연수구 | 2,561  | 4  | 경북 경주시 | 4,332  |
| 5  | 경북 경주시 | 2,470  | 5  | 광주 광산구 | 3,993  |
| 6  | 경남 김해시 | 1,845  | 6  | 경기 화성시 | 3,973  |
| 7  | 경기 화성시 | 1,778  | 7  | 경기 안성시 | 3,921  |
| 8  | 충북 청주시 | 1,697  | 8  | 충북 청주시 | 3,639  |
| 9  | 경기 안성시 | 1,538  | 9  | 경남 김해시 | 3,025  |
| 10 | 충남 천안시 | 1,431  | 10 | 경기 평택시 | 2,717  |
| 11 | 서울 중구  | 1,285  | 11 | 충남 천안시 | 1,948  |
| 12 | 경기 평택시 | 1,223  | -  | 서울 중구  | 945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



### 3. 타 지방자치단체의 고려인 대상 정책 사례

표 2. 지방자치단체의 고려인 관련사업 담당부서 및 업무(사업)

| 광역 및 기초 | 관련 부서            | 담당업무 및 사업내용  |
|---------|------------------|--|
| 광주광역시   | 평화기반조성과 이주민지원팀   | · 고려인정책사업 : 고려인마을을 통해서 주요 사업 운영<br>· 고려인마을 사업지원(9개 사업)   |
| 광산구     | 복지정책과 다문화정책팀     | · 고려인마을 지원사업 관련 업무<br>· 월곡고려인문화관 운영 관리   |
| 경기도     | 외국인정책과           | ·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 사업<br>: 고려인 관련 단체 사업계획서 공모·심사 선정 : 2022년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문화체육행사, 자립 지역공동체 구성·운영 지원 등        |
| 안산시     | 외국인주민정책과 재한동포팀   | · 자체사업은 없으며, 고려인 문화센터를 민간위탁(사단법인 너머) 운영하고 있음   |
| 충청남도    |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정책팀 | · 자체사업은 없으며, 고려인 정책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관련 지원정책에 포함되어 추진  |
| 아산시     | 여성복지과 외국인생활지원팀   | · 자체사업은 없음<br>· 아산시가족센터 신청분원을 설치하여 사업 추진   |
| 당진시     |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     | ·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사업은 없음<br>· 외국인 주민이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의 일부로 상담지원활동 등 고려인 지원<br>· 도담도담공립지역아동센터 개설하여 서비스 제공 |
| 경상북도    | 여성가족행복과 다문화팀     | · 다문화업무의 일부로 고려인 지원사업 담당<br>· ‘고려인주민 자녀 맞춤형 돌봄사업’ 계획   |
| 경주시     | 일자리창출과 노사지원팀     | · 외국인 지원사업(7개 보조사업) : 외국인사업에 포함하여 고려인 지원<br>·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없으며, 외국인 대상 사업에 고려인이 참여할 수 있음         |

주: 경상북도 담당부서인 여성가족행복과 다문화팀은 2023년 1월 1일자로 외국인공동체과가 신설되어 변경됨.

·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인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등 외국인 지원 부서의 역할과 복지 지원 등 다문화부서가 해야 할 역할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양 부서 모두가 필요한 부서이며, 또한 고려인 지원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할 것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가 고려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의 측면에서 필요한 자체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고려인에 대한 세부 지원 업무는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4. 경상북도 고려인 실태 분석

· 고려인 동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과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함.



표 3. 경상북도 고려인 실태 분석

| 구분        | 주요내용   |
|-----------|--|
| 고려인 동포 현황 | · 전국 고려인의 규모는 2021년 78,325명이며, 경상북도는 총 4,843명임. 시군별로는 4,332명(89.4%)가 경주에 밀집되어 체류하고 있음.<br>· 경상북도 고려인 동포는 남성(58.1%)이 여성(41.9%)보다 많았고, 연령층이 중국동포나 기타국적동포보다 젊은 편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높고, 한국체류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음. |
| 노동시장 참여   | · 고려인 동포의 종사상의 지위는 상용근로자 49.0%, 임시근로자 45.1%, 일용근로자 5.4%로, 대체로 임금근로자임을 알 수 있음.<br>· 월평균급여는 200~300만원 미만이 6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당 취업시간이 60시간 이상 15.2%로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
| 소득 및 주거   | · 가구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6.3%, 100~200만원 미만이 45.3%, 200~300만원 미만 34.1%임.<br>· 고려인 동포의 95.7%는 전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살고 있었으며, 주거의 종류는 일반주택이 8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음.  |
| 가족생활      | · 고려인 동포는 유배우인 경우가 65.9%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80%는 한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음.<br>· 고려인 동포 중 70.5%는 자녀가 있었고, 고려인 동포의 경우 다른 동포집단보다 자녀교육의 어려움이나 자녀교육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
| 복지        | · 고려인의 고용보험 가입률 41.9%, 산재보험 가입률 54.7%, 국민연금 가입률 17.1%, 건강보험 가입률 93.0%로 집계됨.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사회안전망을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 5. 심층면접조사 결과

- 경상북도 고려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대상 지역으로는 경주, 경산, 구미, 김천, 영천 등이 선정되었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고려인이 가장 많은 경주에 12명, 그 외 경산, 구미, 김천, 영천에 각 4명씩 대상자를 선정하였고(총 28명), 최종적으로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0명으로 경주 9명, 경산 3명, 구미 4명, 김천 3명, 영천 1명임. 대부분의 고려인은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우므로 러시아어 통역사의 통역을 통해 면접을 진행하였음.
- 경북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면서 인구사회학적 기본 정보를 시작으로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수준과 어려운 점을 물었음. 이어 생활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면을 질문하였음. 소득에 관한 경제부문, 주택에 관한 주거부문, 자녀 양육과 한국어 학습에 관한 교육부문, 건강을 위한 보건 및 의료, 공공기관의 지원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음.<sup>1)</sup> 이와 함께 경북의 농업 인구 대책과 관련하여 고려인의 농축산업 종사 의향과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도 포함하였음.
- 경상북도 거주 고려인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표 4]와 같음.

1) 본 연구에서는 에이거와 스트랭(Ager & Strang)이 제시한 사회통합 지표와 수단을 근거로 심층면접조사 질문문항을 구성하였음(Ager, A., & Strang, A., 2008).



표 4. 심층면접조사 결과

| 구분                 | 주요내용   |
|--------------------|--|
| 생활만족도<br>및<br>정책의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참여자 대다수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음. 만족하는 이유로 본국보다 높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치안이 좋은 점을 꼽았음.</li> <li>· 반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언어 문제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열악한 근로환경, 직장에서의 차별,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높은 물가 등을 꼽았음.</li> </ul>  |
| 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참여자 19명이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1인 가구는 원룸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연구참여자 자들은 방 2개 혹은 3개의 빌라 또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음.</li> <li>· 외국인 임대를 꺼려 더 나은 주택을 소개받지 못한 연구참여자가 있었으며, 주택 임대시장에서의 고려인 혹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차별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li> </ul>   |
| 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참여자 17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들 중 13명이 공장근로자로 월급생활자였음.</li> <li>·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한국인에 비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점, 일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은 점, 직장상사와 동료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점 등을 꼽았음. 고려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직장에서의 업무 배분과 처우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함.</li> </ul>   |
|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참여자 중 14명이 자신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음. 이들 대부분이 일하느라 바빠서 한국어를 학습할 시간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대다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교육을 원하고 있었으며, 고려인들의 경제활동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함.</li> <li>· 연구참여자 중 13명이 보육과 교육이 필요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음. 학교와 교육청이 부적응 고려인 학생을 위한 개별적 지원, 고려인 대상 입시설명회 및 부모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이 밖에도 취학 전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비용과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도 컸음.</li> </ul> |
| 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병원을 이용할 때 연구참여자 대다수가 한국의 병원 시스템을 잘 모르는 점과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지원과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대책이 필요함.</li> </ul>  |
| 지원제도<br>및<br>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인에게 제공해야 할 제도 혹은 서비스로 공장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근속기간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 보육료 지원, 직업기술교육, 주거비 지원, 통역서비스 등을 요구하였음.</li> </ul>   |
| 농축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인의 농촌 이주에 대해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주택과 토지, 대출 지원, 기술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경북 농촌으로의 이주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li> </ul>   |



## 6. 제언 : 경상북도 고려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 경상북도 고려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과 고려인의 생활영역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함.

### ◇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 경상북도의 고려인 지원체계 구축, 컨트롤 및 관리 기능 : 고려인 지원 담당 부서(외국인 담당부서 신설)를 설치하여 고려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컨트롤 타워 및 관리기능 수행
- 지역특화형 장기체류비자 중 ‘동포가족’ 대상 사업을 적극 활용 : 고려인 동포의 체류자격 안정성 확보
-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 필요 : 고려인 지원과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 마련
- 도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사업수행 : 지역별 정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고려인 지원 방안 마련
- 고려인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 :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역량 강화,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표 5. 생활영역별 지원방안

| 구분        | 지원방안  |
|-----------|---|
| 주거영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확보 지원 :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공간 마련, 통역서비스와 관련 법률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등</li> <li>·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의 질 향상 지원 : 차별없이 부동산 임대·매매할 수 있어야 함. 밀집지역 임대아파트 공급 및 입주조건 완화 등</li> </ul>   |
| 경제·일자리 영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 : 직장에서 차별 없는 인사 및 처우, 인식개선, 출신국에서의 경력 활용 방안 마련 등</li> <li>· 지역 노동시장과 연계한 이민정책 추진 : 경북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 필요(정착지원정책 개발, 귀농귀촌사업 대상에 포함 등)</li> </ul>   |
| 교육영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 지역사회통합교육 실시 : 비대면 한국어 교육 등 지원 필요</li> <li>· 학령기 자녀교육 지원 :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보충학습 제공, 지역아동센터 이용부터 우선해야 함.</li> <li>· 미취학 자녀 돌봄 제공 : 자녀의 연령을 고려할 때 방과 후 지원센터 및 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보육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미취학 자녀를 위한 전 교육영역에서 선주민과 고려인 간 지원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li> </ul> |
| 의료영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접근성 제고 : 고려인에게 병원 정보를 안내,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의료 및 병원 정보제공 체계 구축, 통역 서비스 확충 등</li> <li>· 의료안전망 강화 : 직장보험 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지역의 외국인 대상 무료진료소 등과 연계하여 고려인들에 대한 의료 안전망 확보 필요. 의료복지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li> </ul>  |



## 참 고 문 헌

- 김경학. (2014).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4), 259-281.
- 양수진 · 강수진 · 오정은 · Nikitina Yulia. (2020).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 : 고려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
- 오정은 · 김경미 · 송석원. (2015).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현황 조사II. 제주 : 재외동포재단.
- 이광규. (1997). 재외한인의 인류학적 연구. 서울 : 집문당.
- 임채완 · 선봉규 · 이소영. (2014). 국내거주 고려인동포 실태조사. 제주 : 재외동포재단.
- 임채완 · 선봉규 · 박경환 · 전형권 · 이장섭 · 허성태. (2013). 코리안 디아스포라. 경기 : 북코리아
- 지충남. (2020). 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 :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5), 65-94.
- 최영미. (2019). 경기도 거주 고려인주민 실태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2022)에서 연구된 '경상북도 고려인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스 페 셜 코 멘 트

## SPECIAL COMMENT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역사는 1937년 8월 21일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키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부터이다. 20만 명의 고려인들이 1인당 30kg으로 제한된 짐을 들고 검은 상자라 불리는 기차로 이동되었다. 고려인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활용하고자 중앙아시아의 낙후된 농촌 마을로 분산 배치되었다.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의 황폐한 땅을 옥토로 만들고, 구소련의 주요 미곡 생산지와 목화재배지로 변모되면서 농업 영웅으로 재탄생되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중앙아시아 5개국 이 자민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고려인은 차별과 편견으로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의 신세로 전락하였다.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중국과 CIS 지역 동포가 포함되면서 한국으로 동포비자, 방문취업자, 미성년자녀동반비자 등의 체류자격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23년 5월 현재 국내 고려인 주민은 9만 여 명을 넘어섰다. 인구의 절벽시대를 맞이하여 외국국적의 노동자를 단기체류자로만 인식되어왔던 기조에서 고려인은 새로운 정주형 주민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에서는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대응으로 2023년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였다. 외국인공동체과에서는 기존 결혼이민자 중심의 정책에서 외국국적의 이주민과 동포를 대상으로 지역정주를 위한 지역특화체류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현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은 가족 단위로 이주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와 노동력 안정화에도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가 고려인들이 경북에서 새로운 도민으로 지역통합이 되기 위해서 일자리, 주거, 자녀교육, 의료안정망, 돌봄 정책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등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본 정책 방안들이 현실화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많은 고려인들이 경북으로 이주하여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가족센터장 장 혼 성



# 밝은 내일, 도민이 행복한 경북!

**MISSION**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가치 실현**

**VISION** **지역 사회서비스 미래**를 열어가는 전문기관



## 경영목표 & 추진전략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인력  
역량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대응  | 사회서비스 기관 현장 지원   | 보건복지 관련 교육 지원   |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수행 및 기초통계 구축</li> <li>사회서비스 협력체계 기반조성 및 학술대회 개최</li> <li>도·시·군 및 현장 요구의 맞춤형 대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서비스 현장 개선과제 발굴</li> <li>컨설팅·평가인증</li> <li>시설운영·평가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교육콘텐츠 개발·운영</li> <li>사회서비스 현장 교육 수요 조사</li> <li>교육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윤리·인권,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확산</li> <li>노동환경, 안전 등 사람중심 안전사회 구축</li> <li>도민참여, 상생협력 등 참여중심 협력 사회 구축</li> </ul> |



3년 연속(2020-2022)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S등급'** 달성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

공지훈 | 김동화 | 정상기